

COVID-19로 수업전환(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경험에 대한 분석 연구

이봉숙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The learn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who were in the process of converted face-to-face course to online course within the circumstances of COVID-19

Bongsook Yih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020년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시행된 4차례의 수업전환이 학습자의 학업성취과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 서사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전환을 경험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경험을 수업전환 시작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4차례의 수업 전환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6명의 포커스그룹 면담과 4명의 심층 면담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수업전환 시점별 학업성취경험을 시간 순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업전환에 따른 연구참여자들의 학업성취 경험은 인식, 갈등, 수용, 정립의 과정을 거치며 주어진 현실에 적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업전환에 따른 학습자의 학업성취 과정을 제시해 주고 있으므로 교수자는 수업전환에 따른 교수법 연구에 있어서 교수자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는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 학습자의 학업적응 양상을 고려한 수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who were placed under the converted process of face-to-face learning mode to online learning modes. A narrative study was approached in a qualitative research paradigm.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of six students, and in-depth interviews of four students from Jun to December 2020. The learning experiences of students were analyzed within the learning modes. Four steps of learning strategies of students emerged from the analysis: recognition, conflicts, adaptation, and reconciliation. Each learning mode featured common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strategies were closely connected to the degree of familiarity of thes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potential guidelines for effective instruction of teaching staff who confront different teaching modes by deeply understanding students and promoting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and teaching staff.

Keywords : Students, Learning, COVID-19, Narrative, Qualitative Research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Sehan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Bongsook Yih(Sehan University)

email: yihbs@sehan.ac.kr

Received August 2,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Revised August 30,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rona virus disease 19: COVID-19)의 출현과 확산으로 전세계는 팬데믹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대미문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된다[1,2]. 특히 교육기관은 개강 연기에 이어 전국 4년제 대학 총 193개교 중 75.2%(145개교)의 대학이 전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4.8%(48개교)의 대학은 대면수업과 병행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였다[3].

COVID-19 감염증의 지속세로 인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수법의 병용 사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온라인 교육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가 경험한 온라인 교육의 성과분석 연구들 중 교수자 측면부터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수업구성 요소, 교수전략, 수업규정, 수업준비도, 수업 외 활동 설계 등 교수-학습 설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3-5]. 이중 온라인 강의 경험이 없는 교수자들이 느끼는 수업설계의 부담감,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의 어려움, 학생과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과제 채점과 평가의 어려움 등이 교수자 측면에서 대두되는 가장 주된 장애물들로 언급되고 있다[3-5].

흥미로운 점은, COVID-19 발생 이전인 2019년 전국 4년제 대학 개설강좌 중 1% 정도로 조사되었던 온라인 교육이 2020년에는 상황적 필요에 의해 주된 교육방법으로 자리바꿈하게 된다[3]. 이와 더불어 그동안 온라인 교육의 강점으로 부각되었던 일면들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 온라인 교육이 수업자료 개발에 드는 반복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적은 인력으로 다수의 학생을 관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다면[6], COVID-19 이후 진행된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학생 관리는 대면수업 시 학생관리 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라인 강좌 수강생 정원을 대면 강좌 인원의 50%로 감소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고 있어[3], 온라인 교육이 기존 대면수업 방식에 대한 보완이 아닌 주된 교육방식으로 대체 되었을 때 파생되는 다양한 변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자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으

로 인한 강점 또한 조목해볼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학습자료 관리의 효율성(학습영상, 학습자료, 과제 등)과 교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링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기 성찰의 시간이 마련되었다는 점 등이다[3,4,6].

이어서 온라인 수업전환으로 인한 교육성과와 문제점 관련 연구 중 학습자적 측면에서 언급된 사안은 과도한 학습량 및 과제, 조별과제 수행의 어려움, 상호작용의 어려움, 집중력 저하, 네트워크 환경의 불안정, 수업내용에 대한 불만, 학사정보 공지의 부적절, 분별력 없는 평가 등이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다[1,5,7].

반면, 학습자 측면에서 강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필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등교로 인한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장점임과 동시에 단점인 집중력 관련 부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4-6]. 즉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자율적인 반복학습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소극적인 학습자일 경우 온라인 수업참여율이 높다는 점[4]과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점으로 제시되고 있다[5,6].

어떠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든 그에 따른 학습자, 교수자, 기타 학업환경적 측면에서 대두되는 장점과 단점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업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최고의 수업은 학습자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수업이다[8]. COVID-19 이후 전개된 온라인 중심 학습환경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교수-학생 간 소통하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수업형태별 특성에 따라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너무 많은 자유와 권한이 주어진다면, 학습자는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보다 시간을 낭비 하거나 포기하기 쉽고[9], 반대로 너무 과도한 과제나 통제가 주어진다면 소통하는 수업보다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떠한 학습환경에 놓여 있는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학업성취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수자는 이를 위한 안내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COVID-19로 인해 갑자기 변화된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에게는 기존 대면수업과 달리 학습과 관련된 많은 자유와 권한이 부여된 반면 교육적 소통 통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특수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현실에 적응해 가며 학업을 성취해 가고자 기울인 노력들을 수업전환 시작 시점부터 면밀히 살펴본다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학습자 맞춤형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와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COVID-19 확산세 여부에 준해 본 연구자 소속 기관은 3월 16일 1차, 4월 27일 2차, 8월 31일 3차, 10월 5일 4차에 걸친 수업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초유의 불안정한 학습환경에 노출되었던 학생들의 학업경험은 각 수업전환 시점별로 특이성과 다양성을 띄고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 경험을 순차적으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20년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시행된 교수법 전환이 학습자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감염증의 확산 속에서 여러 차례 수업전환을 경험한 학습자들이 학업성취를 위해 행한 노력들을 경험의 연속성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행위패턴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COVID-19로 인한 수업전환을 경험한 학습자들의 경험을 시간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파악해보고자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과거 어느 한 국면에 치우친 경험의 단편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성적 측면에서 화자가 구술한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삼는다[10]. 또한 구술된 이야기 속에 언급된 행위와 사건이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고 구성되어 가는지, 그리고 언어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낼 수 있는 방법론이다[11]. 특히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구술된 이야기는 플롯을 지녀야하며, 시간성에 기반을 두고 연속적으로 배열될 때 분석 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12]. 따라서 내러티브 연구방법론은 1년간 지속된 4차례의 수업전환 경험을 통해 각 시점별 학습자들이 기울인 학업성취노력들을 순차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 본다.

2.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는 2020년 2개 학기 동안 온라인 일방향 수업-대면수업-온라인 실시간 양방향수업-대면수업 순으로 진행된 수업 전환을 모두 경험한 학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감염증 위험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대중교통 이용 등 타인과의 접촉 기회가 적으며, 인터뷰 개시 전·후 2주간은 타 지역 방문 경험이 없는 학교 인근 거주자. 2. 학생 서로 간에 친밀도가 높은 자. 연구 참여자는 질적연구 자료의 질 확보 차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목적성 샘플링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13].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 연구윤리위원회 승인(SH-IRB 2020-9)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자로 연구목적과 익명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시 전에 공지해 줌으로써 비밀보장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였다.

2.2 자료수집

자료는 연구자 소속 기관 봉사동아리 회원 중 6명의 학생(여학생 4명,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면담 자료와 4명(남2, 여2)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과 심층 면담은 동아리 휴게실과 상담실에서 1시간 이상 씩 진행되었다.

“COVID-19로 인해 변화된 학습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습니까?”라는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일방향, 양방향)별 장·단점, 잦은 학습환경 전환과정 동안 적용된 개인적 학업성취노력, 방해요인, 촉진요인, 기대감, 학업습관, 시간관리 등을 포커스 그룹 면담과 개별 심층 면담에서 촉진질문으로 사용하였다.

2.3 자료 분석

포커스 그룹 면담은 수업방식 별 내용적 측면, 학생 감성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대두되는 장·단점 중심으로 자료를 분류하였다. 이어서 이야기 구성패턴을 파악하고자 개별면담 자료를 토대로 현 인터뷰 시점에서 재구성된 1년간의 수업전환 경험을 이야기 구술 순서로 배열하여 추적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수업전환 사건들이 지닌 개연성을 찾는 과정이며[11], 구술된 이야기는 “규칙성”이라는 구성패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학생들은 교수법 별로 요구되는 체화된 규칙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반응(학업 성취를 위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수업은 정해진 수업장소(교실), 정해진 수업시간, 학습환경(교수자, 동급생)등의 핵심요소로 진행되어야 하는 규칙성이 있었으며, 온라인 수업은 3W 즉 언제(whenever) 어디서나(wherever) 다양한 언택트(Untact) 메신저(whichever)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가져야 한다는 규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칙성을 이루는 고리가 끊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 양상들을 포커스 그룹 면담 자료에서 분석된 결과들과 연결하였다.

2.4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는 Sandelowski[14]가 제시한credibility(신뢰성), fittingness(적합성), auditability(감사가가능성), confirmability(확인가능성) 등의 질적연구를 위한 질확보 기준을 따르고자 하였다.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선정, 라포형성, 자료수집과 분석절차를 세세히 제시하였다. 또한 유사질문과 반복질문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적합성 확보를 위해 목적성 샘플링방법 적용과 분석결과에 대한 연구참여자 및 전문가(교육학 전공자 1인)를 통한 교차검증이 이루어졌다. 감사가능성 측면에서 연구자는 연구주제에 부합되는 방법론의 적용과 그에 따른 자료수집 및 관리에 대해 연구자 소속 기관으로부터 IRB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을 위한 비밀보장의 원리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마지막 확인 가능성은 연구의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이 충족되었을 때 확보되는 기준이므로 이를 충족하고 있다.

3. 연구결과

2020년 4차례의 수업전환[온라인수업(일방향)-대면수업-온라인수업(양방향)-대면수업]을 순차적으로 경험한 화자들의 이야기는 수업전환이라는 이야기 플롯을 통해 각 수업형태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준해 경험의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업형태별 규칙성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수업전환이 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수업형태별 체화된 수업방식이 있음을 화자 스스로 인식하고, 새로운 수업방식에 적응해 가기 위해 갈등하며, 절충안을 수용하고, 현실 맞춤형 대안을 정립해 가는 과정을 온라인 수업 전환(대면수업 규칙성 파괴)-대면수업 전환(온라인 수업의 규칙성 파괴)-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 혼용(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각 규칙성 파괴)-변형된 대면수업(교과목 특성별 맞춤형 수업)의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성 틀은 Figure 1과 같다. 각 시점별로 제시된 화자들의 이야기는 대표성을 띄는 내용으로 발췌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1 1차 수업 전환: 대면수업이 지닌 규칙성 파괴: 인식 시기

1차 수업전환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면수업이 지니고 있는 규칙성 파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미 체화된 기존 학업방식에 대한 강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준 삼아 새로 전환된 수업 방식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학기는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2주간의 개강연기로 상황주시 기간을 갖지만 전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초유의 학사관리 운영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Semester	The first semester					The second semester			
Time	The first converted			The second converted		The third converted		The fourth converted	
Teaching Methods	Off-line		Online (Cyber)		Renewal of off-line		Online Zoom)		Hybrid of on and off-line
Regularity	1.Given place 2.Given time 3.Facilitating factors for learning (Professors, students)	Breaking rule of off-line	1.wherever 2.whenever 3.whichever	Breaking rule of online	1.Given place 2.Given time 3.Facilitating factors within certain distance	Breaking rule of on and off-line	1.wherever 2.Given time 3.whichever	Tailored on and off-line	1. Theory based-online (Zoom) 2.Practicum based-off-line
Adjusting stages	Recognition		Conflicts			Adaptation		Reconciliation	
COVID-19									

Fig. 1. Process of converted teaching methods

대학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자 소속기관은 일방향 온라인 수업을 먼저 적용하였다. 온라인수업으로 전면 전환되었으나 학생과 교수자 모두 곧 감염병이 종식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일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화자들이 경험한 초기 온라인 수업은 하루빨리 대면수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표출되고 있으며, 그 내면에는 체화되어 있는 기존 대면수업 방식이 평가의 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답답했어요. 교수님 얼굴이 비춰지지 않고 목소리만 들으면서 수업해야 하니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교수님들께서도 처음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 많이 어색해 하셨고...음

뭐~ 곧 끝나겠지, 당분간만 이러겠지 그런 생각....(포커스 그룹 면담).

예전엔 그래도 매일아침 학교 가야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계으름 피우고 싶어도 교실에서는 옆에 친구가 하고 있는게 보이니까 수업에 집중하려고 하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은 그냥 시중에 많이 있는 유튜브 본다 란 선입견이 있다고 해야 하나 뭐, 좀 그런 기분이니 틀어놓고 있다 보면 제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무거워 지면서 '그래, 다시 학교가게 되면 그때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미웠던 거 같아요(개별면담1)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화자들은 기존 대면수업이 지닌 특성을 기준으로 온라인 수업을 평가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교수자, 동급생의 학습촉진요소와 교실이라는 학습성취를 위한 장소, 정해진 학습 시간 등 대면수업이 지닌 고유한 속성인 3가지 규칙성이 수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면수업에 비해 제한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과 25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시간으로 기존 학습 분량과 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까란 학습성취와 관련된 막연한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강의 중간 중간에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질문하고 그랬는데 25분 연속으로 티비 보듯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수님들도 보충설명을 많이 하실 수 없는 거고 저희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니까 아쉽고 그랬어요. 저희가 배우는게 임상하고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임상사례를 많이 들어주시면서 수업하셨었거든요. 그런 것에

익숙해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개별면담4)

또한 처음 시도된 전면 온라인 수업방식으로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인터넷 접속환경의 불안정과 집중력 저하는 대면수업이 주는 이점에 대한 갈망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교수님, 온라인 수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끊기고 다 시보기 재생에 자꾸 문제점이 나타나고 처음에 출석체크가 안될 때도 있었어요. 화소도 좀 높였으면 좋겠고, 라이브가 최고 인 것 같아요. 동영상은 너무 답답해요. 집중이 안돼요 정말(개별면담3)

새로운 방법이 시도될 때 기존 체화된 방법이 주는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은 당연한 인간 심리이다. 따라서 학업 성취 과정에 있어서도 갑작스런 학업방식의 전환은 새로운 학업 방식에 대한 적응에 앞서 기존 방식에 대한 강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고수하려는 본능과 이를 위한 타당성 찾기, 그리고 자기합리화가 지속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3.2 2차 수업 전환: 온라인 수업이 지닌 규칙성 파괴: 갈등 시기

2차 수업전환은 수업전환에 따른 갈등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로 1학기 감염병 진행 국면의 일시적 진정으로 인해 일방향 온라인 수업이 기존 대면수업으로 회귀하는 시점이다. 화자들의 이야기는 온라인 수업이 지닌 규칙성 파괴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2차 수업전환에 따른 대면수업은 1차 수업 전환 시 회귀를 원하던 수업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동시에 또 다른 혼돈의 상황이 연출된다. 학습자들은 이미 온라인 수업이 지닌 속성인 3W(whenever, wherever, whichever)의 규칙성을 부지불식간에 체화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이러한 규칙성이 파괴되는 2차 수업 전환은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갈등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각자 공부가 잘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동영상 수업은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또 정지버튼이 있으니까 정지해 놓고 앞에 수업 분량을 정리해 놓고 다시 이어들을 수 있고 이해 안 될 때는 몇 번이고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용어도 잘 모르

는 거는 바로 인터넷 찾으면 되고...대면수업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시는거 받아 적느라 다음 설명 놓칠 때가 많았는데 온라인 수업은 언제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더 집중이 잘됐던 거 같아요. 폰으로 어디서나 들고자 할 때 들을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포커스 그룹 면담).

이제 좀 집에서 할만 해지는데 다시 나와야하니까 아, 그때는 미치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거리두기, 거리두기 하는데 나와야 하는지....(개별 면담4)

위의 내용은 온라인 수업이 지닌 가장 대표적인 3W의 강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야기 속 화자는 이미 3W를 학업성취를 위한 전략으로 원활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이 지닌 강점들은 학업성취를 위한 수업내용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야기 속 화자의 감성적 측면에서도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저는 온라인 수업에 나를 만족했거든요. 교수님들도 모두 성의껏 강의해주시고 그림이랑 동영상 자료도 다양하게 넣어주셔서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25분 알차게 수업을 진행해주시고 정확히 수업목표에 맞게 진도를 진행해 주셔서 좋았어요. 마치 교수님이랑 저랑 둘이 수업하는 느낌, 뭐 그런거였어요. 교수님이 저만을 위해 수업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개별 면담 2)

또한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느끼는 내적 갈등은 감염증 예방 수칙 준수에 대한 불편함과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

제 경우는 대면수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책걸상 간격을 이렇게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름순으로 앉으니까 맨 뒷자석으로 배정이 되요. 그러면 잘 안들려요. 교수님들이 다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마스크 끼고 서로가 그런 상태에서 발음이 정확하게 안들릴 때가 많았어요. 저는 차라리 온라인 수업이 훨씬 좋았어요(개별 면담 4).

...학교에 나와서 애들 만나고 교수님들 뵙고 수업시간에 자세한 설명 들으니까 아, 역시 수업은 대면수업이지

뭐 그렇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 누가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잖아요. 그런게 너무 불안했어요(포커스 그룹 면담).

이상과 같이 감염증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진행된 1-2차 수업전환 시기에 화자들은 수업형태별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3차 수업 전환: 대면수업-온라인 수업이 지닌 규칙성 파괴: 수용 시기

3차 수업전환 시 나타나는 화자들의 이야기는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지닌 규칙성이 일정부분 파괴됨과 동시에 보완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수업전환을 경험하는 매 시점마다 중복되는 반응 양상을 보이지만 3차 수업 전환 시 두드러진 행위 양상은 현재 수업상황에 대한 수용이다. 지속적인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2학기 시작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전환이 이루어졌으나 1학기과 달리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변형된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온라인 수업은 일방향이 아닌 교수자와 학생 간 상호작용 기능을 강화한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수업(Zoom)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라는 규칙성은 ‘지정된 시간에 어디서나’로 변형되어 정해진 수업시간에 접속해야하며, 교과목 시수 당 50분 수업으로 진행되지만 대면수업 보다 학업과 관련된 개인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줌(Zoom)수업이 타이트하게 운영되다보니 다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공부했어요. 그래도 기숙사로 짐을 옮기거나 자취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니까 좋았어요. 공부하는 애들은 수업 방식이 어떻게 변하든 열심히 하거든요(포커스 그룹 면담).

그러나 양방향 온라인 수업도 완벽한 교수법일 수는 없을 것이다. 수용단계에서 대두된 화자들의 이야기는 수업방식 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업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중 인터넷 환경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수업시간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강의실 입장을 해도 중간에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업을 놓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동영상 자료를 다시 듣기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듣고 싶은 부분

만 골라 들으면 좋은데 50분 수업을 모두 들은 후에야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을 골라 들을 수 있게 설정해 놓 거예요. 줌으로 이미 많은 부분은 들었는데 다시 또 전체를 들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포커스 그룹 면담).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얼굴하면 쳐라고 말씀하시지만 끄고서 수업 듣는게 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얼굴을 화면에서 끄는데 아마도 교수님들께서는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수업 중간에 학생들 이름 자주 불러주시고 돌발질문하시면서 이해되는지 확인해 주시는 부분은 좋았고, 수업 시작할 때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복습해 주실 때도 정말 좋았어요...간혹 친구들이 외부에서 핸드폰으로 듣는 경우 소음이 막 들리고 가족들이 뒤에서 떠드는 소리, 티비 소리 등이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로 조심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개별 면담 2).

위에서 언급된 기술적인 문제점들은 해당기관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수업 중간 이름 불러주기, 돌발퀴즈와 복습시간을 가지는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 하여 학습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학습자 간 지켜야 되는 예절과 학습권 존중에 대한 지적은 수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서, 집중력 저하는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 향상을 위해 3차 수업전환에서 언급되고 있는 특이점은 개인적 대안 모색을 간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50분을 계속해서 듣다보면 아무리 집중해서 들으려 해도 어느 정도 나른해 지는 건 있어요. 머리로는 '아, 잘 들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차도 끓여다가 미리 놓고, 간식거리도 준비하고 하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았을 때 집중하게 되는 거 같아요. 장학금도 받아야 하고 하니까....(포커스 그룹 면담)

...저는 일단 몸이 무기력해지지 않게 많이 움직이려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눕게 되고 그러면 모니터 앞에 오래 앉아 있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거의 매일 집근처 한 바퀴 돌고, 배고프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군것질을 많이 했는데 참으려고 하고 잠 깰려고 목캔디도 자주 먹었어요(개별 면담 1).

이상으로 위의 3차 수업전환에서 표출된 화자들의 이야기는 주어진 현실 상황에 맞게 학업을 성취해 가고자 개인적인 학업동기화를 꾀하며 현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3.4 4차 수업 전환: 맞춤형 대면수업-온라인 수업접목: 정립 시기

4차 수업전환은 현실 맞춤형 수업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될 감염증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이슈와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고민하고 대안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의 1.5단계 거리두기 발표 이후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수업으로 4차 수업 전환을 하게 된다. 수업전환에 따른 혼란이 또 다시 발생되고 안전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2차 수업전환(대면수업) 시 언급된 혼란양상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차 수업전환에서 사용한 대면수업은 교수자들에게 양방향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었으며, 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면수업으로 운영한다는 유연성이 있다. 이로 인해 화자들의 이야기도 1-3차 수업전환이 수업 방식에 따른 표면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4차 수업전환에서 나타난 화자들의 반응은 학업 성취를 위한 적합한 학습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배어 있다.

온라인 수업이든 대면수업이든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것으로 하든지 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그런데 음...온라인으로 하는 실습수업은...음...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족도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아니예요. 직접 해보지 않고 동영상으로 스킬을 습득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포커스 그룹 면담).

위의 이야기는 수업방식에 따른 형식적 비교가 아닌 교과목이 지닌 고유의 특성에 따라 수업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적 기준이 정립된 것이며,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이슈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대면수업이 용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물론 2차-3차 수업전환 시에도 실습교과목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되었다. 그러나 4차 수업전환 상황과 달리 이전 수업전환에서는 '다른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우리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주시면 안될까요?' 등과 같이 수업의 형식

에 따른 비교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으며, 수업의 질적 측면은 깊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4차 수업전환에서는 학업성취를 목표로 교과목이 지닌 특성에 초점을 둔 이야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수업이 다 대면수업이 아니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긴 기분이에요. 실습수업은 완전 찬성이구요. 또... 이제 곧 4학년 되는데 그때는 졸업시험도 봐야하고, 국시(간호사 국가시험)도 있고 또 병원에 근무하려면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동안 너무 안한 것 같아 걱정이예요,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개인 면담 1).

위와 같이 수업의 질적측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화자가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해야만 하는 타당성과 성취 목표를 자각하는 부분과 연결된다. 화자 스스로 학업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다는 것은 스스로 학업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4단계 학업적응 과정은 성공적 학업성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표점을 재확인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혼용이 피할 수 없는 현 시대적 교육행태임을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4. 논의

COVID-19로 인한 수업전환 시점별 학습자의 경험을 시간 순으로 추적해 보고 구조화 시키고자 했다. 각 수업전환 시점별 이야기는 현 수업형태가 기존 체화된 규칙성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의 강도를 달리 하고 있다. 먼저 1차 수업전환은 기존 수업 형태에 대한 규칙성이 가장 강하게 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시점으로, 학업 성취를 위한 질적 측면 보다 수업방식 자체에 대한 비교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다. 이로인해 화자들의 이야기는 기존 연구결과[1,2,5,7]에서 언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들과 일맥상통되는 부분인 인터넷환경의 불안정성, 25분 수업에 따른 학습내용에 대한 불안감, 상호작용 부재에 따른 불안과 불편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분간 이겠지’란 안일함이 주는 학업수행의 나태함은 감염증이 지닌 특수성과 계획되지 않은 수업전환이 가져온 결과물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Lee[9]가 언급한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한 정도에 대한 조절은 잘 계획되어진 수업설계에 의해 결정지어질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수업방법에 맞는 수업설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차 수업전환은 일방향 온라인 수업이 주는 장점에 대한 부각이 강하게 표출되는 시기로 부지불식간에 온라인 수업방식의 규칙성이 체화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연구[4-6]에서 언급되었던, 반복학습의 장점, 시간활용의 용이함,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습자료 등의 내용들이 유사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현 수업방식이 주는 강점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새로 전환된 수업방식에 대한 거부감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해 볼 대목은 온라인 수업에서 간과되기 쉬웠던 ‘감성적 접근’ 이 실제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치 교수님이 저랑 같이 수업하는 느낌...교수님이 저만을 위해 수업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 이는 학습자에게 부여되는 감성적 지지가 대면수업이 강할 것이라는 통념에 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3차 수업전환은 기존 온라인 수업의 제한점으로 대두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문제점[1,5,7]을 보완한 양방향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적용된 시점이다. 학습자에게 경험은 수업참여와 문제해결능력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8]. 학습자가 1,2차 수업전환에서 경험한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로 하여금 내적 여유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Yih[15]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단초가 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스스로 학습의 주체자가 되어 수업을 촉진시켜주는 요소와 방해요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양방향 온라인 수업도 대면수업에 비해 학습자에게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긴 하지만 기존 연구[9]에서 언급되었던 시간낭비나 학업포기 가능성 보다 학업 촉진 및 학습권 존중을 위한 제안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마지막 4차 수업전환은 이론수업 중심의 실시간 양방향 비대면 수업과 실기수업 중심의 대면수업이 이루어진 시기로, 수업형태별 장점과 단점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미래를 위해 현시점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행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재확인해 가고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과거사건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구성된 현 시점의 이야기가 미래를 예측하는 단서[10]가 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분명한 목표 설정은 긍정적인 행위결과를 유발하기 마련이다[16,17]. 간호학이라는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식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 모두에서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학습자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현실자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여러 차례 수업전환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많은 혼돈을 경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발전에 가고 있음이 각 시점별로 확인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고는 COVID-19로 인해 시행된 여러 차례 수업전환이 학습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수업전환 시점별로 접근해 보았다. 각 시점별 이야기는 학습자가 기존 수업방식에 얼마나 체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체화되어 있는지에 대해 각 수업방식이 지닌 규칙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를 이룩해 가는 과정을 인식, 갈등, 수용, 정립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교육기관의 실정에 맞게 진행된 수업전환을 사례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수업전환 형태는 각 대학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계별 학습자의 학업적응과정 또한 다양성을 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염증 유무와 별개로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이 갖는 장·단점들은 수업 전환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에서 간과되었던 감성적 측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본 연구에서는 재조명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형태적 측면에 대한 접근에서 더 발전하여 학습자와 소통하고 감성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중재방안에 대한 세부적 접근이 후속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 H. Kim, "Virtual academic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due to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4, pp.287-290,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12.278>
- [2] J. Lee, "The modality of non-face-to-face Korean language class during COVID-19", *Korean Speech and Discourse Analysis*, Vol.49, pp.57-87, 2020.
DOI: <http://dx.doi.org/10.18625/jsc.2020..49.57>
- [3] J. DO, "An investigation of design constraint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face-to-face course into online cours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6, No.2, pp.153-173, 2020.
DOI: <http://dx.doi.org/10.24159/joec.2020.26.2.153>
- [4] I. Joe, "Study on operational case of non-face-to-face real time online Korean classes and improvement direction: Focused on the full-scale oper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Vol.58, pp.241-265, 2020.
DOI: <http://dx.doi.org/10.21716/TKFL.58.9>
- [5] W. Choi, Y. Jun, "Case review of untact online course based on video recording vs synchronous video conferencing", *Journal of Field-based Lesson Studies*, Vol.1, No.2, pp.1-28, 2020.
DOI: <http://dx.doi.org/10.22768/JFLS.2020.1.2.1>
- [6] J. Y. Lee, J. Bong, "The conceptions and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taking e-learning and face-to-face sections of the same cours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28, No.1, pp.53-78, 2012.
- [7] G. K. Lee, J. Ahn,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2, pp.142-152,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12.142>
- [8] D. S. Kim, W. S. Park, "Exploring the meaning and its components of teaching-learning alliance for good instruct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31, No.4, pp.1-20, 2018.
DOI: <http://dx.doi.org/10.29096/JEE.31.4.01>
- [9] S. Lee, "The process and result of online collaborative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25, No.3, pp.35-56, 2009.
- [10] P. Recour, Time and narrative, p.187,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p.1-137.
- [11] D. E. Polkinghorne,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 p.228,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pp.125-156.
- [12] A. Lieblich, R. Tuval-Mashiach, T. Zilber, Narrative research analysis and interpretation, 174, Sage, pp.88-111.
- [13] H. A. Maxwell,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p.153, Sage, pp.69-76.
- [14] M. Sandelowski,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merican Nursing Science*, Vol.8, No.3, pp.3-5, 1986.
- [15] B. Yih, "A narrative study within the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placed under academic probation", *Journal of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16, No.11, pp.352-361, 2018.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8.16.11.353>
- [16] D. E. Han, "The trends of intrinsic motivation and its

perspectiv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Vol.2, pp.54-93, 1984.

- [17] B. Yih, "The type and dimension of a faculty-student interaction: Narrative study focuse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2, pp.300-309,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12.300>

이 봉 숙(Bongsook Yih)

[정회원]



- 2002년 5월 : LaTrobe Uni. Master of Clinical Nsg(간호학 석사)
- 2007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세한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사회심리간호, Qualitative research